

다산포럼

독일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이번 브라질 월드컵 대회에서 독일 대표팀의 우승은 축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독일 대표팀은 개개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의 뒷받침 아래 정확한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안정된 게임을 운영하는 가운데 기회만 오면 거침없는 대담성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상대를 위협하였다.

머지 시원시원할 정도였다. 축구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눈에도 독일 대표팀은 재주를 피우지도 요령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각자가 할 일을 수행하는 성숙한 플레이어들처럼 보였다. 독일이 이번 월드컵을 위해 이민자 출신을 다수 포함한 가히 다민족팀이라고 할 만한 대표팀을 구성하였고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였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개방성과 혁신성이 월드컵 무대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한국과 독일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축구보다도 더 큰 격차를 실감하며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뼈아프게 되새김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육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교수 부족에 운영도 엉망인 부실한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 맡기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자원은 쥐꼬리만큼 하면서도 강압에 가까운 통제를 일삼는다. 더 열거하기도 수치스러운 정도의 열악한 구조를 그냥 두고 세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서로 경쟁하라고 교수들과 학생들을 다그치고 뒤져지는 대학이나 교수는 쫓아낸다고 위협한다.

양동욱의 S스토리

노출 있는 옷차림 해석의 온도 차이



양동욱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전 세계 시청자의 눈이 한 곳을 향한 그곳, 독일과 아르헨티나 월드컵 결승전. 두 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던 후반전에 갑자기 한 남성이 경기장에 뛰어 들었다. 그는 벗은 상반신에 '타고난 장난꾸러기'라고 적고 팬티만 입은 채 경기장에 난입해 유유히 관중을 향해 손 키스를 날리더니 독일 수비수에게 손살갑이 달려가 키스를 시도했다.

회,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은 예기치 않게 알몸을 드러내며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스트리커(Streaker)를 종종 구경하게 되었다. 이들이 경기장에서 노출을 감행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최적의 장소에서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다.

회규범을 어기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데, 자신의 생식기관을 본 상대가 불안이나 공포를 표현할 때 쾌감은 극대화되며 우월감을 느낀다.

을 선택한다. 즉, 자신만의 매력이나 개성을 옷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자율성이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음식이 있듯이 선호하는 옷차림이 있다. 한 여성이 민소매 상의와 꼭 끼는 바지 혹은 목이 파인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 여성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혹은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수 있다.

기고

재선에 성공한 광주·전남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동범 전 광주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제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사·도민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먼저, 제2기 출범과 함께 어떠한 각오로 취임을 하였는지가 궁금하며 지지를 받지 못한 사·도민과 학부모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지난 4년간 제임시 추진했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얼마나 반성하고 재고하였는지 묻고 싶다.

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교육가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부터 갖춰가길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야 한다. 넷째, 소통과 배려의 교육행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환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 한다. 넷째, 소통과 배려의 교육행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환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기초연금 예산 정부 부담률 더 늘려라

이달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첫 지급일(2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사업 예산의 16%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기 때문이다.

형편이다.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저조한 것은 복지부 부담 증가로 재정 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초연금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분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광주 자치구의 기초연금 재정분담률은 12%(국비 70%, 시비 18%)로 전남 시·군의 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안이한 대응이 부른 잇따른 광주 학생 자살

광주에서 또다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월 1주일 사이 중·고생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3개월 만의 일이다.

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여고생 2명의 동반자살을 계기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광주시도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하고 있다.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text about social issues and education.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